

“평하발언 사과하고 차별조치 시정하라”

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 성명 발표하고 시정 촉구

전북교육청 노사협의 과정에서 사측이 시설관리직, 운전직 등 소수직렬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지부장 김종태)는 14일 성명을 내고 사측이 소수직렬에 대한 폄하발언을

사과하고, 인사에 있어서 차별조치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14일 전북교육청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사협의과정에서 소수직렬이 5급 사무관에 한명도 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시설관리직, 운전직 등

소수직렬에 대한 폄하발언을 했다.

5급 사무관은 중간관리자로서 정책을 기획하고, 팀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인데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이같은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배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내고 사과와 함께 인사에 있어서 차별조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성명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의 시설관리직, 운전직 등 소수직렬은 전체 직원 3,900여명 중 8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율에도 불구하고 소수직렬은 5급 사무관에 그동안 한명도 배정되지 않은 상황여서 소수직렬들의 불만을 사고 있고, 노조를 통해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가 지난 12일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시 1차 면접을 실시했다.

도교육청, 25일까지 온라인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실시

전북도교육청이 2019년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에 들어간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점검하기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 및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오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학생과 학부모는 조사대상 전체학교의 교당 1개 학년(초 5학년, 중·고 2학년), 교직원들은 교원을 비롯해 일반직·교육공무직까지 포함된다.

이달 경우 학생은 4만9,587명, 학부모 5만3,024명, 교직원 2만9,155명 등 총 13만1,766여 명이 참여 대상이다.

조사항목은 23개 영역에 27개(자유기술 1개 포함) 문항이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안전 △놀이방 60+ △수업혁신 △진로진학 교육 △민주적 학교문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등이 있다.

조사 참여 방법은 모바일 및 QR코드로 접속해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는 교육정책 진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교육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된다”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초 5학년과 중·고 2학년으로 한정해 실시하는 만큼 각 학교에서는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가 최근 예술관 리사이클홀에서 '2019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이끈다

전주대 LINC+사업단, 세미나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최근 예술관 리사이클홀에서 LINC+사업단 ICC(Industrial Collaboration Center) 활성화 일환으로 '2019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라북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 재생에너지 분야 R&D 성과물의 기술사업화 방안 모색, 개발제품의 트랙 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대규모 종합 실

증 단지 구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도내 혁신기관 관계자와 전북중소벤처리더스 포럼 회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새만금실증단지추진단 방기성 단장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 종합실증단지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양대 원장목 센터장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Power-to-Gas 전략 구축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 후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회도 진행돼 새만금 단지 재생

에너지 활성화와 이를 위해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대 LINC+사업단장 주승 교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래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실증단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학이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분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LINC+사업단은 분야별 다양한 ICC(Industrial Collaboration Center)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향후 사업 활성화 및 대학과 지역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외부전문가 참여 시민감사관 감사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9년 하반기 시민감사관 감사를 진행한다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도교육청 6층 회의실에서 시민감사관 7명이 참여해 감사를 실시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행정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체 감사기구의 전문성 보완 및 감사의 투명·신

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예산집행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돼 시민감사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및 교육감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특정한 사업 등에 대해 도교육청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실질감사

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대상은 ▲어린이 놀 권리 쉼 권리에 관한 사항 ▲여학생 생리대 보편적 지급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청구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제3기 및 제4기 시민감사관 실질감사 결과 개선·권고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어린이 공약 1호인 ‘놀 권리 쉼 권리’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놀이문화 조성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실태를 확인하고 분석해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및 통합적인 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들의 감사 참여로 다양한 교육정책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수감부서들은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수시 1차 면접 실시... 5.43 대 1 기록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12일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시 1차 면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28일 수시1차 모집 결과 1,088명 모집 정원에 총 6,148명이 지원해 5.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30명 모집에 870명의 지원자가 몰린 물리치료학과로 28.11대 1을 기록했으며 응급구조 15.79대 1, 간호 15.55대 1 등 보건계열 학과가 강세를 보였다. 공업·사회실무 계열 학과 중에서는 사회복지 7.79대 1, 유아교육 6.21대 1, 전기 4.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면접교사장을 찾았으며, 학부모 대기실과 교사장 주변에서는 입시 열기로 가득했다. 면접에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교직원들이 나서 수험생 및 치량 안내로 불편함을 해소했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된 이번 면

접에는 3명의 면접관 중 1명을 외부 산업계 인사로 구성해 졸업 후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심층면접으로 진행했다.

면접 이후 면접 참가자들은 학과의 발전계획, 비전, 졸업 후 진로와 취업 현황 등을 듣고 강의실, 실습실, 기숙사, 도서관 등 대학의 교육시설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미용건강과에 지원한 수험생 진소연(19)양은 “면접을 진행하면서 교수님들이 편안한 얘기로 인도해 위셔 지원에 대한 동기를 자신있게 전달할 수 있었다”며 “학교 시설과 학과 안내를 통해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어 꼭 합격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수시 1차 합격자 발표는 오는 25일부터 대학홈페이지(<http://jvision.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시 2차 지원은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을 특별전형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석사학위 과정 554명과 박사학위 과정 252명, 석·박사 통합과정 28명 등이다. 별도 정원으로 BDN융합공학과에서는 석사 30명, 박사 및 통합과정 5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16일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전북대 홈페이지(<http://www.jnu.ac.kr>)를 통해 진행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수험표를 교부받는다.

구술고사는 해당 대학 지정 교사장

(수험표 교부시 안내)에서 23일부터 25일까지 학과별로 실시되고, 11월 11일 오후 2시 전북대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전형은 서류심사 50점, 구술고사 50점을 합한 점수로 이뤄지며, 간호대와 공대, 사범대, 예술대, 사회대, 의대 등 일부 학과에서는 별도 필기고사도 이뤄진다.

자세한 정보는 전북대 입학본부 홈페이지 (<http://enter.jnu.ac.kr/>) 전화 (063) 270-4446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